벌써… 그늘이 그리운 계절 광주·전남 낮기온이 29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담양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전남도-우즈벡 신재생에너지 협력 본격화

'KOR-UZB 에너지위크' 협약 후속 조치…道, 현지 태양광 업체 방문
타슈켄트주 등 50만 가구에 2조원대 보급 사업…신북방 진출 교두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및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MIIT)와 전자산업협회(Uzeltexsanoat)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지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원 규모의 보급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었고 최근엔 도내 한 기업이 3MW의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이 기업은 13MW 물량의 해외시장 개척길에 나설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방문한 SDPV사는 강진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모듈 생산 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을 설계 중이다. 약 200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모듈을 생산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전남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며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전남 기업 지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정부 정책인 글로벌혁신 특구 유치와 연계하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까지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의병 선양자문단' 본격 활동

향토사학자 등 44명, 유적지 조사·발굴·홍보 활동

전남도가 도내 숨은 의병을 찾고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을 지난 2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2개 시·군 학예연구사, 지역 향토사학자 등 44명으로 구성한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은 숨은 의병장 및 유적지의 기초 조사와 문증 및 개인 소장 유물 신규 발굴, 남도의병박물관 건립에 대한 홍보, 지역 내 전파 활동을 하게 된다. 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이후에도 이름 없는 의병 발굴과 선양사업 관련 의견 수렴 창구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전남도가 지금까지 조사한 도내 의병 유물과 유적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 있는 의병 유적지와 유물, 미발굴된 의병을 찾아 의병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에서 신규 조사한 내용은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시 반영할 콘텐츠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흩어진 호남지역 남도 의병 관련 유물을 조사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유물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설명된 자료가 많이 생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을 활용한 무명 의병·유물 발굴 등을 통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와 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 대량 생산 '햇바디1호' 품종보호권 획득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연구 8년만에…20년간 유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채취 횟수와 생산량이 많은 '햇바디1호'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2016년 연구사업 착수 후 8년 만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이 결정된 '햇바디1호'는 향후 20년간 품종보호를 받는다. 일명 곱창김으로 불리는 '잇바디돌김'은 우리나라 토종 김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좋아하는 품종이다. 전남지역에서 10월부터 3개월만 생산되는 품종이다.

그동안 잇바디돌김 양식은 씨앗(각포자) 형성률이 낮고 김발에 씨앗을 붙이기가 어려워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양식어업인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품종보호권이 결정된 '햇바디1호'는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씨앗주머니(각포자낭)에서 많은 씨앗을 방출해 김발에 씨앗 부착률이 높아 양식기간 중 수확 횟수가 많아져 생산량도 많아 김 양식어업인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김 종자주권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5년 '해풍1호'를 시작으로 2017년 '해모돌1호', 2018년 '신풍1호', 2019년 '해풍2호'를 품종등록 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11년부터 어가에 분양한 김 종자는 4만9642g으로 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다음달 조직개편 3급 이상 승진 4명으로

오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되는 2023년 광주시 하반기 인사<본보 5월 31일자 5면>에서 3급 국장급 승진 폭이 4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돈국(3급) 군공항교통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내년 1월 공로연수대상자인 이 국장은 민선 8기 들어 꽉 막힌 승진인사 폭을 넓히고, 후배들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7월 인사에선 3급 이상을 기준으로 이 국장을 비롯한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관련 한시 기구인 군공항이전본부 신규 설치에 따른 1년 한시직인 군공항이전본부장(3급) 자리가 신설된다. 또 정년을 2년 넘게 남긴 이현 남구부구청장도 7월 말 명예퇴직을 공식화한 상태다. 여기에 아직까지 3급 이상 간부들의 추가 명예퇴직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 1월 3급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광주시는 올 하반기 인사에서도 공식적인 3급 승진자가 1명 뿐이었으나, 이돈국 국장 등의 명예퇴직으로 그나마 막혔던 인사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AI 융합 산업 활성화

사업단-테크노파크 협력 간담회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 인공지능 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 3층 회의실에서 광주테크노파크와 교류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지역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과 산업 융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 소개 및 지역산업·인공지능융합산업 간 연계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제조업 등의 협력 성공 모델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 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과 지역 기업 기술을 융합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광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지역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